

석사학위논문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고 명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재 정

2002년 8월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재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강 재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자아존중감은 정체감 확립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에 발달하면 일생을 통하여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하면서 자아존중감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은 물론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MMTIC 성장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MMTIC 선호지표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상담집단 아동의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주도 소재 A초등학교 5학년 전체 3학년 89명 아동을 대상으로 Coopersmith(1967)가 제작하고, 박애선(1993)이 번역한 자아존중감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상담집단 26명, 비교집단 26명을 임의로 무선표집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MMTIC 성장프로그램은 박정묘 (1996)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도 통합 프로그램(SAM)', 심혜숙과 김정택(1998)의 MBTI 성장 프로그램 및 김현정 (1998) 결혼가정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는 본 연구자가 직접, 매주 1회씩(60-80분) 10주간에 걸쳐 총10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상담집단에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MMTIC 선호지표는 외향형, 감각과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이다.

결론적으로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을 높여주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 향상과 학교 생활 적응을 증진시켜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MMTIC 성격유형의 특성	5
2. 자아존중감의 특징과 형성요인	10
3. MMTIC 성장 프로그램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1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8
1. 연구 대상	18
2. 연구설계	18
3. 연구절차	19
4. 측정도구	21
5. 자료처리	23
IV. 연구결과 및 해석	24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24
2. 상담집단의 MMTIC 성격유형	24
3. 가설 검증	25
V. 요약, 결론 및 제언	35
1. 요약	35
2. 결론	38
3. 제언	39
참 고 문 헌	40
<Abstract>	45
부 록	48

< 표 목 차 >

<표Ⅱ-1> MMTIC 검사에 의한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징	9
<표Ⅲ-1> 연구 설계의 구성	18
<표Ⅲ-2 > MMTIC 성장 프로그램의 내용	20
<표Ⅲ-3 >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22
<표Ⅳ-1>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비교	24
<표Ⅳ-2> 상담집단의 MMTIC 성격유형의 지표별 분포	24
<표Ⅳ-3>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결과 비교	25
<표Ⅳ-4>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결과 비교	26
<표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 검사 결과 비교	27
<표Ⅳ-6> 일반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	28
<표Ⅳ-7>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	29
<표Ⅳ-8>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	30
<표Ⅳ-9> 학교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	30
<표Ⅳ-10> 외향형/내향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결과 비교	31
<표Ⅳ-11> 감각형/직관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결과 비교	32
<표Ⅳ-12> 사고형/감정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결과 비교	33
<표Ⅳ-13> 판단형/인식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결과 비교	34

< 부 록 목 차 >

<부록 1> MMTIC 성장 프로그램	49
<부록 2> 마음의 창	60
<부록 3> 자아 존중감 검사	76
< 부록 4> 소 감 문	7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현장에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아동은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를 만족스럽고 조화롭게 유지하며 원만하게 성장해 간다. 하지만,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아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장과 발달이 낮고 또한 부적응으로 종종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Coopersmith(1967)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며 학업이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움츠러들고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소심하며 자신의 판단능력에 회의적이다. Satir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서나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의 실수를 헤쳐 나갈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많은 성공을 거두면서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고 한다(성민선 역, 1993). 또한, 주남희(1994)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창의성, 수행 능력,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저해하며 높은 긴장과 협동생활에서의 비자발성, 수업에 대한 태만, 일탈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므로 아동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Coopersmith(1967)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점차적으로 발달되나 아동기 동안 현저한 발달을 이루며, 한 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이 계속될 때까지 거의 항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발달되는 아동기에 학교교육에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위한 인지적, 행동적 접근(조수영,1994), 개인의 성격특징 또는 행동경향성들과의 관계연구(김지아,1993; 장희정,1994), 그 외 집단상담활동을 통한 연구(박아청,1987; 김창은,1990; 방언희,1994; 이은선,2001) 등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성격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시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최근에 박정묘(1996), 권복순(1996), 이지화(2000) 등에 의해 성격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MMTIC(Murphy -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MMTIC은 성격을 심리적 경향의 역동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Jung의 심리유형론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인간의 성격유형을 외향성과 내향성(EI), 감각형과 직관형(SN), 사고형과 감정형(TF), 판단형과 인식형(JP)의 지표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네 가지 선호성으로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유형은 아동의 선천적인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말해 줌으로써 각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다. 즉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인식하고 타인이 서로 다른 심리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김정택, 심혜숙,1993). 특정한 성격유형을 가진 개인에게 그 개인의 성격에 적합한 상담과 자문을 피드백 해 줄 수 있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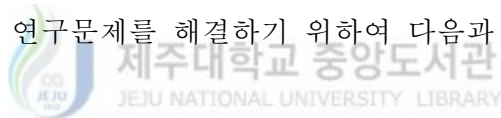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MTIC을 활용한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2.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3.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 득점과 사후검사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1.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2.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3.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4. 학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3. MMTIC 성장프로그램은 상담집단 아동의 선호지표에 따라 자아존

증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3-1. 외향형(E) 아동과 내향형(I)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3-2. 감각형(S) 아동과 직관형(N)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3-3. 사고형(T) 아동과 감정형(F)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3-4. 판단형(J) 아동과 인식형(P)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본인이 근무하는 제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집단상담 과정에서의 아동들의 행동의 변화나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효과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MMTIC 성격유형의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특징과 형성요인, MMTIC 성장 프로그램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MMTIC 성격유형의 특성

MMTIC은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근거하여 1990년 미국의 Murphy박사와 Meisgeier 박사에 의해 개발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MMTIC은 원리면에서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와 같으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류영옥, 1994).

Jung은 인간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며 일관성이 있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심리적 경향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즉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가 그의 내부 또는 외부로 향하는가에 따라 내향형(Introversion) 또는 외향형(Extraversion)이 되고, 외부환경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감각(Sensing), 직관(iNtuition) 기능을 선호하는 인식형(Perceiving Type)과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기능을 선호하는 판단형(Judging Type)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능의 선호성은 선천적이고, 각기 다른 심리유형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에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며,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Myers-Briggs는 인간의 인식과 판단의 선호경향을 알아내는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를 만들었다. 그 후 1990년 Murphy와 Meisgeier에 의해 MMTIC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MMTIC은 인간의 성격유형이 4가지 선호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4가지 선호척도의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어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MMTIC 선호지표에 의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MMTIC 기질과 16가지 성격유형별 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성격이해를 돕기 위한 개입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MMTIC의 선호지표, MMTIC의 기질, MMTIC의 16가지 유형의 특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김정택, 심혜숙,1993).

먼저 MMTIC에서 나타내고 있는 4가지 선호지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형(E)과 내향형(I) 지표로서 심리적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다. 이는 개인이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인식과 판단의 주의집중이 외부세계로 향하면 외향형, 내부세계로 향하면 내향형이라고 한다.

외향형 아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외적 사건, 사람, 행동에 자극을 받고 반응하기를 선호한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일어나는 상황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반면에 내향형 아동은 자신의 내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경험하기 전에 생각 속에서 먼저 이해하려 하며 개인적인 공간, 혼자 처리하는 일을 선호한다.

둘째, 감각형(S)과 직관형(N)지표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즉 인식기능으로서 사람, 사물, 사건이나 아이디어를 깨닫게 되는 모든 방법이다.

감각(S)기능은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의식적 지각이다. 감각형 아동은 오감(五感)을 통해 관찰 가능한 사실들과 사건을 정보로 수집하며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중시한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실적 묘사에 뛰어나다.

직관(N)기능은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기능이다. 즉 이는 흔히 말하는 육감으로 현상이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기능이며 본능적 파악의 능력으로 거의 무의식적 지각이다. 따라서 직관형 아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사물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거나 의식너머에서 작용하는 가능성을 추구한다. 상징적인 것, 은유, 추상적인 것을 선호한다.

셋째, 사고형(T)과 감정형(F)지표로서 무엇을 결정·선택할 때 사용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즉 판단기능으로서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든 방식이다.

사고(T)기능은 주어진 관념 내용을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다. 사고형 아동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교 분석하며 판단을 한다. 이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정의, 원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중요시하고 경쟁적인 것을 좋아한다.

감정(F)기능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과정으로 주관적인 가치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감정형 아동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주어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석이나 논평보다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조화를 선호한다.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고 순하며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넷째, 판단형(J)과 인식형(P)지표로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선호하는 생활양식, 즉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및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판단(J)형 아동은 정신현상의 의식적 동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외부세계

에 적응할 때 판단기능(사고나 감정)을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의사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안정되고 확고한 태도를 보이며 외부세계에 구조적이고 질서있는 생활양식으로 적응한다.

인식(P)형 아동은 무의식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으며 외부세계를 적응할 때 판단기능보다는 정보수집, 인식기능(감각이나 직관)을 더 선호하며 일을 결정하고 생활을 구조화하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은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관찰 과정을 즐긴다. 더 많은 정보의 수집을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에 맞추어 생활하고 자율적인 생활양식을 지닌다.

다음은 MMTIC 기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MTIC 기질 유형에는 인식기능인 감각(S)이 생활양식인 판단(J)이나 인식(P)과 결합하여 감각적 판단형(SJ)과 감각적 인식형(SP)을 만든다. 또 인식기능인 직관(N)이 판단기능인 사고(T)나 감정(F)과 결합해서 직관적 사고형(NT)과 직관적 감정형(NF)을 만든다. 그래서 MMTIC 기질에는 SJ형, SP형, NF형, NT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Jung(1971)은 기질이란 개인의 여러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지문과도 같다고 하였다.

SJ형 아동은 소속감, 의무감, 책임감을 중시하고 전통과 위계질서를 선호하며 일처리를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SP형 아동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순간에 요구되는 충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규칙이나 규율에 매이는 것을 불편해한다. 현상유지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NF형 아동은 협동하며 조화를 추구하고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에 관심이 많다. 인간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다. 사실과 구체성을 싫어하고 의미나 가치전달을 중시한다.

NT형 아동은 능력과 자질, 재능, 재주, 지식축적을 중요시한다. 지속적 자기 점검과 의심, 자기 비판적이다. 법칙추구나 반복을 싫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과거보다 미래에 있다.

마지막으로 MMTIC의 16가지 성격유형은 앞에서 살펴 본 MMTIC에 의한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해서 <표Ⅱ-1>과 나타낸다.

<표Ⅱ-1> MMTIC 검사에 의한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징

<p>ISTJ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함. 정리정돈을 잘함.</p>	<p>ISFJ 온순하고 봉사적이며 책임감 및 인내심이 강하고 꾸준함.</p>	<p>INFJ 조용하고 침착하며 책임감이 강함. 내면적인 욕심이 많음.</p>	<p>INTJ 고집이 아주 세고 승부욕이 강함. 논리적이며 생활이 조직적임.</p>
<p>ISTP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의욕적이며 고집이 셸. 조용하며 성급함.</p>	<p>ISFP 너그럽고 순하며 낙천적임. 말없이 할 일을 잘하며 따뜻함.</p>	<p>INFP 마음이 깊고 따뜻하며 조용함. 동정심이 많고 사려깊음.</p>	<p>INTP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호기심이 강함. 감정이 단순함.</p>
<p>ESTP 개방적, 활동적, 적극적, 진취적임.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호탕함.</p>	<p>ESFP 단순하고 솔직하며 활발함. 적응력이 뛰어나고 눈치빠름.</p>	<p>ENFP 순진하고 기발하며 활발함. 칭찬에 민감하고 사람을 좋아함.</p>	<p>ENTP 활발하며 독창적임. 재주가 많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음.</p>
<p>ESTJ 책임감이 강하고 활발하며 합리적으로 사고함. 예의바르며 정리정돈을 잘함.</p>	<p>ESFJ 명랑·쾌활하며 표현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며. 감정이 풍부하고 착실함.</p>	<p>ENFJ 온순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감을 줌. 참여성이 강하고 정리정돈을 잘함.</p>	<p>ENTJ 활발하고 논리적이며 고집이 셸. 간섭을 싫어하며 통솔력이 있음.</p>

이렇게 인간의 개인차는 4가지 선호지표의 방향 배합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Jung에 의하면 어린이의 성격 발달은 평생을 통하여 천천히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씨앗과 같다고 하였고, Myers는 바람직한 유형발달은 인생의 초년부터 시작되며 환경은 유형발달을 돕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중요시하였다. (Myers & McCaukkey 1985).

따라서 아동기에 MMTIC을 통해 아동의 선천적인 심리경향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성격과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름을 이해하게 하며,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자아존중감의 특징과 형성요인

자아존중감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이은선,2001). 여기서는 자아존중감의 정의와 그 하위요인, 형성요인과 특성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해 온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 그 방법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피험자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이고, Coopersmith(1967)의 Self-Esteem Inventory(S.E.I)는 각 개인들에게 각각의 기술이 자기를 어느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들의 결과는 서로 유사하며 이들 방법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자기의 가치나 능력에 보여지는 가치의 개인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김선희, 1987; 이지화,2000).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광범위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개념 정의는 없다(Wylie,1974).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사랑, 자기신념,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기평가, 자기평정, 자기가치, 자아개념 등이 있는데(Wells & Marwell,1976) 이들 중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과 특별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최보가·전귀연 1993).

최근 여러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의 평가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구별하고 있다. Mussen, Conger, Kagan, & Huston(1984)은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최윤정,2000 재인용). 즉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개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판단과 평가도 포함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Gordon(196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이라고 정의 내렸고. Brisset(1972)은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 즉 자아평가의 과정과 자아가치의 과정을 포함한다. 각각은 서로 보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자아가치는 자아평가보다 인간 존재에 있어 좀더 기본적이다. 자아평가라는 의미에서 자아존중감은 한 사람 자신의 중요성에 관한 판단이다. Gilmore(1974)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인 태도로서 개인들과의 비교 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태도로써 자아의 평가차원으로 본다(최은영,2000 재인용). Bachman & O'mally(1977)은 세가지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데 첫째, 자아존중감은 개인으로서 자기평가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이란 어떤 특성 또는 특수한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 또는 개괄

적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이란 물위에 무엇이 표류하듯이 떠돌아다니거나 쉽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E0lkind & Weiner(1978)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공 기대하는 정도’라고 정의 내렸다. Newman(1983)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 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최윤정,2000 재인용). 김경연(1987)은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있는 개념이라는 것과 그 의미에 있어 평가적, 감정적 요소가 내포됨으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자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자아개념보다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 감정적 태도라고 하였다.

Rawls(1971)은 자신의 가치와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며 개인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에 관한 신념이라 하였다.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을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서 필수적이며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자아존중감이란 첫째, 우리 자신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둘째 우리 스스로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능력있고 중요하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 자기평가이며 가치판단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일반적으로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는데(한혜자,1991; 박정묘,1996; 김은영,2000; 이은선,2001),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자아상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태도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진취적이고 활력있는 삶을 전개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고 열등감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정적 상태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인데, 부모의 양육방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정상적인 자아존중감의 구실을 하지만 부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자아존중감이 왜곡되어 복종, 죄책감으로 바뀌게 된다.

셋째,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이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갖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대체로 자신의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난처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넷째, 학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해 갖는 자아상이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고 또 다른 과제에 도전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동일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는 아동들도 성공 경험에 노출되느냐 실패경험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변화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학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성공보다 자신의 성공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성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으로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 형성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Joseph(1994)은

타인의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Coopersmith(1981)는 네 가지 요인을 제안하였다. 첫째, 의미있는 타인이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존중과 수용, 그리고 관심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성공은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개인적 성공과 지위에 대하여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역에서의 달성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가치와 포부에 따라서 경험들을 해석하고 수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개인이 자아존중감의 손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제와 방어가 있는데 개인의 자아존중감 손상이나 가치 저하에 반응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은 무력감, 불안 등의 경험을 줄이고 개인적인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주위 사람들 즉, 부모, 교사, 친구 등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사고과정, 정서, 동기,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행동 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된다(박춘기,1983; 송남두,2000).

끝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송인섭(199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첫째,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따라서 모든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근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격의 어떤 면도 차단하지 않는다. 둘째, 현실에 대한 실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경험은 이전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경험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아는 끊임없이 모든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새롭게 된다. 셋째,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즉 어떤 행동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 그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넷째, 선택과 행동에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며, 미래는 과거의 사건이나 변화무쌍한 환경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다섯째,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 이들은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인 적응을 피하는 대신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추구하는 삶을 즐기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Solly & Stanger(1956)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해결상황에서 정확성이 적고 속도가 느리며 불안을 나타내고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일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Fitch(1970)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성공과 실패를 내면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은 성공은 내면화하고 실패는 내면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관경(1998)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양면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며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지만,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비생산적이고 부적응하는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행동특성에 영향을 준다. 아동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자아정체감 확립 및 자아실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일생동안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배려되어야 하겠다.

3. MMTIC 성장 프로그램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을 활용한 교육적·치료적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MMTIC의 장점

중의 하나가 개인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자각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Myers & Myers,1980; 심혜숙,1993) 이 검사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은 아동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수용,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심혜숙,김명권,1996).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성격유형 분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동들 각자가 자신의 선천적인 성격적 경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수용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택과 심혜숙(1993)은 MMTIC 성격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 및 아동 자신의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된다. 즉,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이해와 아동의 성격유형 발달이 부모의 성격유형에 의해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교사의 아동에 대한 성격유형 파악은 아동의 성격유형에 맞는 교수방법이나 학습 스타일을 살려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긍심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도가 넓혀지고 성취동기를 높여주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셋째, 아동의 성격유형의 이해는 아동의 지능개발과 성장상담에 기여한다. 아동의 발달과정 중 가족 안에서 부딪치는 적응문제와 가족들의 상호이해를 높여주어 가족치료의 유용한 도구라고 하고 있다.

MMTIC의 이론적 기초는 MBTI인데, MBTI는 1941년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Lippin(1990)은 MBTI를 비행청소년의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에 적용하기에 매우 훌륭한 도구라고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도 MBTI를 활용한 연구가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꾸준

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심혜숙,김명권,1996).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MMTIC 및 MBTI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류영옥(1994)은 C-MBTI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진로성숙과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정묘(1996)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MMTIC을 활용한 SAM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효능감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심혜숙과 김명권(1996)은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경향성을 연구하고 그들이 지닌 성격적 잠재력과 장점 그리고 보완할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MBTI 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권복순(1996)은 보호관찰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MBTI를 통한 청소년 성장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의미있게 향상되고,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의미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김은주(199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MMTIC을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성숙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김현정(1998)은 결손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지화(200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류영옥(1994), 박정묘(1996), 권복순(1996), 이지화(2000)는 MBTI 및 MMTIC을 활용한 상담활동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지화(2000)는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므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대상, 실험설계, 연구 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소재 A초등학교 5학년 52명이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5학년 전체 3학년 89명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낮은 아동 52명을 추출하여 무선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26명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당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실험처치를 한 상담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후검사 비교집단 설계 (pretest ·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연구 설계의 구성은 < 표Ⅲ-1 >과 같다.

<표Ⅲ-1> 연구 설계의 구성

상담집단	O ₁	X	O ₂
비교집단	O ₃		O ₄

O₁, O₃ : 사전검사

O₂, O₄ : 사후검사

X : MMTIC 성장 프로그램 적용

3. 연구절차

1) 연구의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사전검사, 상담·비교집단의 구성, MMTIC 성장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주시 소재 A초등학교 5학년 89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이 비교적 낮은 아동 52명을 추출하여 무선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26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상담집단에게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게는 상담기간 중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10주간(2001년 5월 9일부터 7월 11까지) 매주 1회(수요일 14:00)를 실시하였다. 한 회기 소요시간은 60 ~80분씩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MMTIC 성장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박정묘(1996)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도 통합 프로그램(SAM)'과 심혜숙과 김정택(1998)의 MBTI 성장 프로그램 및 김현정(1998)이 결손가정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MMTIC 성장 프로그램의 내용

회 기	주제	활동내용	개입전략
1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 마음의 창 그리기 • MMTIC 검사 실시 	개별활동
2	자기 성격 유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TIC의 네가지 선호경향 설명 및 자기유형 추측하기 • 각 개인의 성격유형 이해 • 16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 	개별활동
3	서로 다른 나와 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 - I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 가 I 에게 하고 싶은 말은? • S - N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동 파출소에서 학교까지 약도 그리기 	지표별 그룹활동
4	서로 다른 나와 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 F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 J - P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여행 계획 세우기 	"
5	소중한 나와 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별칭 짓기 • 성격의 공통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과 단점 - 그룹을 색깔로 표현하기 	성격 유형별 그룹활동
6	소중한 나와 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가지 소원 -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
7	소중한 나와 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의 뿌리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

회 기	주제	활동내용	개입전략
8	소중한 우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친구 · 내가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 · 반복적으로 행하는 실수 	기질별 그룹활동
9	소중한 우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교과 · 좋아하는 숙제 · 시험공부 방법 	기질별 그룹활동
10	마음 여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창 그리기 · 소감문 작성하기 	개별활동

4.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MMTIC 성격유형검사

MMTIC은 Jung의 심리유형 이론과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urphy & Meisgeier, 1990)로서 심혜숙, 김정택 교수(1993)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EI척도 .76, SN척도 .65, TF척도 .63, JP척도 .63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방식은 손 채점과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손 채점이 가능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박애선(199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25개의 문항으로 된 필답검사,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그렇다’, ‘아니다’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자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obinson & Shaver, 1975 ; 강종구, 1986 재인용).

본 검사도구는 일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와 학습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알아보는 학교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검사 신뢰도는 $r = .86$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을 <표Ⅲ-3>과 같다.

<표Ⅲ-3>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 항 번 호	문 항 수
일반적 자아존중감	1, 3, 4, 10, 12, 13, 15, 19, 25	9
사회적 자아존중감	5, 7, 8, 14, 18, 21	6
가정적 자아존중감	6, 9, 11, 17, 20, 22	6
학교 자아존중감	2, 16, 23, 24	4

5. 자료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상담집단에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실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1$,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에 의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과의 사전검사와 상담집단의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t검정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비교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 분	M	SD	t
상담집단(N=26)	12.81	4.14	-.27
비교집단(N=26)	13.15	5.13	

<표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집단으로 간주되었다.

2. 상담집단의 MMTIC 성격유형

<표IV-2> 상담집단의 MMTIC 성격유형의 지표별 분포

성격유형(지표별)	E	I	S	N	T	F	J	P
N = 26	22	4	11	15	3	23	5	21

<표IV-2>의 본 연구에 나타난 상담집단의 MMTIC 지표별 분포는 김정택과 심혜숙(1993)의 한국판 MMTIC 표준화 검사의 각 지표별 대상에서 나타난 비율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득점과 사후검사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자아존중감 점수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구 분		N	\bar{X}	SD	t
일반적 자아	사전	26	3.96	1.99	.54
	사후	26	3.73	1.46	
사회적 자아	사전	26	3.00	1.52	-5.74 **
	사후	26	5.15	1.57	
가정적 자아	사전	26	4.38	1.55	-1.69
	사후	26	4.85	1.08	
학교 자아	사전	26	1.46	1.14	-6.35 **
	사후	26	2.92	.98	
계	사전	26	12.81	4.14	-6.94 **
	사후	26	16.65	3.77	

** : p<.01

<표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평균점수(M=16.65)가 사전검사 평균점수(M=12.8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94, p<.01$). 또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사후검사 평균점수(M=5.15)가 사전검사 평균점수(M=3.0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74, p<.01$), 학교 자아존중감도 사후검사 평균점수(M=2.92)가 사전검사 평균점수(M=1.46)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35, p<.01$).

이 결과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에서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 표Ⅳ-4>과 같다.

<표Ⅳ-4>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결과 비교

구 분		N	\bar{X}	SD	t
일반적 자아	사전	26	3.81	1.90	2.41 *
	사후	26	2.81	1.86	
사회적 자아	사전	26	3.27	1.66	1.05
	사후	26	2.85	1.85	
가정적 자아	사전	26	3.92	1.79	-.50
	사후	26	4.04	1.51	
학교 자아	사전	26	2.15	1.19	1.14
	사후	26	1.81	1.20	
계	사전	26	13.15	5.13	1.94
	사후	26	11.50	4.77	

* $p<.05$

<표Ⅳ-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은

사후검사 평균점수(M=11.50)가 사전검사 평균점수(M=13.1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요인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사후검사 평균점수(M=2.81)가 사전점수(M=3.81)보다 낮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1, p<.05$).

이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기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므로, 아동의 발달과정에서의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M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후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5>과 같다.

<표IV-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 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26)	16.65	3.77	4.32 **
비교집단(N=26)	11.50	4.77	

** P < .01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4.32, p<.01$).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

집단(M=16.65)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M=11.50)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자기와 타인 이해 및 타인과의 성격의 역동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대인관계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되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가설 2-1 :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일반적 자아존중감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일반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26)	3.73	1.46	2.00
비교집단(N=26)	2.81	1.86	

<표IV-6>에서 보면 상담집단(M=3.73)의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Morse(1964)의 8세에서 현저한 자아존중감 감소가 일어나 10세까지 계속된다는 연구결과와 Protinsky와 Farrier (1980)의 청소년 이전(9-11), 초기청소년기(12-14)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불안하다는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바 있다. 그러나 상담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MMTIC 성장 프로그램의 효과로 볼 수 있겠다.

가설 2-2 :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26)	5.15	1.57	4.86 **
비교집단(N=26)	2.85	1.85	

** : $p < .01$

<표IV-7>에서 보면 상담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86, p < .01$).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M=5.25$)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M=2.85$)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프로그램의 성격유형별 활동에서 성격 및 대인관계의 보편성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어 안정감과 소속감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3 :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26)	4.85	1.08	2.22 *
비교집단(N=26)	4.04	1.51	

* : p<.05

<표IV-8>에서 보면 상담집단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2, p<.05).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M=4.85)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M=4.04)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프로그램의 성격유형별 활동에서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족간의 갈등과 심리유형에 대한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능률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4 : 학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학교적 자아존중감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9>과 같다.

<표IV-9> 학교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26)	2.92	.98	3.67 **
비교집단(N=26)	1.81	1.20	

** : p<.01

<표IV-9>에서 보면 상담집단의 학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67, p<.01$).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M=2.92$)의 학교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M=1.81$)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프로그램의 기질별 그룹활동에서 자신의 기질에 따른 학습습관, 학습방법 및 대인관계에 대한 탐색으로 교우간 이해와 수용능력이 향상되어, 학습능력과 학교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 MMTIC 성장프로그램은 상담집단 아동의 선호지표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3-1 : 외향형(E) 아동과 내향형(I)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 아동의 외향형/내향형 지표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IV-10> 외향형/내향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비교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외향형(E)(N=22)	13.82	3.23	17.50	3.41	-6.72 **
내향형(I)(N=4)	7.25	4.57	12.00	1.83	-2.18

** : $p<.01$

<표IV-10>에서 보면 외향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6.72, p<.01$).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향형 아동 ($M=17.50$)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적인 활동을 선호하여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표현적인 외향형 아동은 자기이해를 통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내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호하는 내향형 아동에게는 향상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가설 3-2 : 감각형(S) 아동과 직관형(N)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될 시킬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 아동의 감각형/직관형 지표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11>과 같다.

<표IV-11> 감각형/직관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비교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감각형(S)(N=11)	10.55	4.39	15.55	3.75	-7.01 **
직관형(N)(N=15)	14.47	3.14	17.47	3.70	-4.00 **

** : $p<.01$

<표IV-11>에서 보면 감각형 아동($t=-7.01, p<.01$)과 직관형 아동($t=-4.00, p<.01$) 모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감각형 아동($M=15.55$)과 직관형 아동($M=17.47$)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각형, 직관형 아동 모두 자신의 성격유형 이해를 통해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3 : 사고형(T) 아동과 감정형(F) 아동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 아동의 사고형/감정형 지표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12>과 같다.

<표IV-12> 사고형/감정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비교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사고형(T)(N=3)	10.33	8.50	14.67	4.51	-1.86
감정형(F)(N=23)	13.13	3.45	16.91	3.70	-6.61 **

** : $p < .01$

<표IV-12> 에서 보면 감정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6.61, p < .01$).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감정형 아동 ($M = 16.91$)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정이 풍부하고 수용력이 높은 감정형 아동은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가치를 높게 두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가설 3-4 : 판단형(J) 아동과 인식형(P) 아동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 아동의 판단형/인식형 지표

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IV-13>과 같다.

<표IV-13> 판단형/인식형 지표간 자아존중감 비교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판단형(J)(N=5)	14.20	2.28	17.40	2.19	-4.00 *
인식형(P)(N=21)	12.48	4.45	16.48	4.08	-6.04 **

* : $p < .05$, ** : $p < .01$

<표IV-13>에서 보면 판단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 = -4.00$, $p < .05$), 인식형 아동 또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6.04$, $p < .01$). 따라서 MMTIC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판단형 아동 ($M = 17.40$)과 인식형 아동 ($M = 16.48$)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활동이 외부세계에 적응할 때 판단기능 사용을 선호하는 판단형 아동과 인식기능 사용을 선호하는 인식형 아동 모두에게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자아존중감은 정체감 확립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에 발달하면 일생을 통하여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자아존중감의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고학년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유형의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상담집단 아동의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 득점과 사후검사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1.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2.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3.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4. 학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MMTIC 성장프로그램은 상담집단 아동의 선호지표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 3-1. 외향형(E) 아동과 내향형(I)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 3-2. 감각형(S) 아동과 직관형(N)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 3-3. 사고형(T) 아동과 감정형(F)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 3-4. 판단형(J) 아동과 인식형(P)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의 검증 과정은 사전검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MMTIC 성장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제주도 소재 A초등학교 5학년 전체 3학년 89명 아동을 대상으로 Coopersmith(1967)가 제작하고, 박애선(1993)이 번역한 자아존중감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자아존중감 수준이 비교적 낮은 아동 52명을

추출하여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26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정하였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박정묘(1996)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도 통합 프로그램(SAM)'. 심혜숙과 김정택(1998)의 MBTI 성장 프로그램 및 김현정(1998)의 결혼가정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는 본 연구자가 직접, 매주 1회씩(60-80분) 10주간에 걸쳐 총10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상담집단에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비교에서, 사후검사(M=16.65)가 사전검사(M=12.81)보다 높게 나타났다($t=-6.94, p<.01$).

둘째,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M=16.65)과 비교집단(M=11.50)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32, p<.01$).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사후검사 비교에서는 상담집단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M=5.15), 학교 자아존중감(M=2.92)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p<.01$)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가정적 자아존중감(M=4.85)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셋째, 상담집단의 선호지표별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외향형 아동(M=17.50), 감각형 아동(M=15.55)과 직관형 아동(M=17.47), 감정형 아동(M=16.9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그리고, 판단형 아동(M=17.40)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인식형 아동(M=16.48)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MMTIC 선호지표는 외향형, 감각과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타인의 시각을 통해 자신을 보려고 시도하며, 자아존중감이 불안한 시기인 만큼 자아존중감을 안정 또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을 높여주어 자신감을 갖고 대인관계 향상은 물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의 다양한 성격유형을 고려해서 상담과 생활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MTIC 성장 프로그램은 기존의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달리 다인수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급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등에 바람직하게 활용되어져야 하겠다.

둘째, 지금까지 MMTIC 성장프로그램이 진로지도 및 학습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강종구(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접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감,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1987).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과 타인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2001).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애(2000).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1996). MMTIC에 대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논문
- 김은영(2000).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 석사논문
- 김은주(1997). MMTIC을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장이(1999). MBTI 성격이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택, 심혜숙(1993). 어린이 성격유형검사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5). MMTIC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임승환 역(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8). MBTI 성장프로그램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김명준 역(1999).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지아(199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은(1990).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대인불안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8). MMTIC 성장 프로그램이 결혼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과정
- 김현준(2001).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영옥(1994). C-MBTI를 활용한 집단진로상담이 아동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87).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묘(1996). SAM 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논문
- 박춘기(1983). (A)Study on Separation Theorems for convex sets and convex Functions,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언희(1994).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훈련이 중학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민선 역(1993). 사람 만들기, 홍익제
- 송남두(2000).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5).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 상조사
- _____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 심혜숙 외역(1999). 성격유형과 진로탐색,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_____, 김명권(1996).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

- 이윤선(1995). 성격유형 및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논문
- 이은선(2001).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화(2000). 성격유형검사(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정(1994).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영(1994).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남희(1994). 국민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성계발훈련과 V.I.P.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관경(1998).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인성교육.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양도서관
-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31(2) pp.41-54
- 최원현(2000). MMTIC에 의한 초등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정(2000). 교사-학생의 인간중심적 태도에 대한 지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2000).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혜자(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Bachman, J. F., & o'Malley. P.M.(1977). Self-esteem in youngman :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 attainment. *Journal of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

- Branden, J.(1992).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New York.
- Brisset, D.(1972). Toward a clarification of self-esteem. *Psychiatry*, 35,155-263
- Caplan, H.(1982). *Social Psychology of the Social Concept*, New York : Harian David Son, Inc.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_____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 Fitch, G.(1970). Effects of self-esteem, perceived performance, and choice on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16 311-315.
- Gordon, C.(1969). Self-conceptions methodologi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148, 328-364.
- Joseph, J. M.(1994). *The resilient child, preparing today's youth for tomorrow's work*. New York : Plenum Press.
- Jung, C. G.(1971). *Psychological types*.(H.G.Bayners, Trans.: Rev. R. F.C.hull) Princeton. NJ: Prinection Univ.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1)
- Lippin, B.(1990). Personality types of women in prison. *JPT*, 19, 3-12.
- Martin, C.(1995). *Looking at types and Careers*, CAPT, Florida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oughton Mifflin Co.,11-12.
- Myers, I. B & McCaulley, M. H.(1985). *Manual : A Guide to D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N.J.: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 Solley, C., & Stagner, R.(1956). Effects of magnitude of temporal barriers, type of goals and perception of the self.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1, 62-70.
- Steffenhagen, R.A.(1987). Self-esteem : A mode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97 204.
- Wells & Marwell(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rverly Hills: Sage
- Wylie(1974). A Review of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Measuring Instrument(rev.edn.), *The self-concept*, Vol. 1.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Abstract>

Effect of the MMTIC Growth Program on Self-esteem of Children

Kang Jae-jeong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o Myeong-gyu



Self-esteem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identity build-up and self-realization. Moreover self-esteem is recognized to be considerably constant for the whole life if it is developed in children. Accordingly the formation of positive self-esteem is essential in the latter period of elementary school when the children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peer group and reduction phenomenon of self-esteem appears.

The research is designed to find the influence on self-esteem of children applying the MMTIC Growth Program to help understand and accept others as well as themselves and live a sound and mature life, and explore how different is self-esteem by the MMTIC preference index.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this research purpose.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1. What influence does the MMTIC Growth Program have on self-esteem of children?
2. What influence does the MMTIC Growth Program have on sub-factor of self-esteem, gener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and school self-esteem?
3. What influence does the MMTIC Growth Program have o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preference index of children of the counseled group?

Conducted was the self-esteem diagnostic test made by Coopersmith(1967) and translated by Park Aeseon(1993) on 89 children of a total of 3 classes of fifth grade from A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Jeju city so as to choose the research participants. As the result of the test 26 children of the counseled group and 26 children of the compared group were divided freely by random choice and made up the groups.

The MMTIC Growth Program was reconstituted based on 'the Integrating Program of Self-identity and Academic Achievement (SAM)' of Park Jeongmyo(1996), the MBTI Growth Program of Sim Hyesuk and Kim Jeongtaek(1998), and 'the MMTIC Growth Program' applied to middle school students from deficient families by Kim Hyeonjeong(1998) to be suitable for the aim of the research by the researcher. The conduct of the program was done directly by the researcher once(60-80 minutes) a week over 10 weeks.

After finishing the program, the post-test was conducted on both the counseled group and control group with the same test tool as that used for the pre-test.

For the data analysis the t verific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SPSS/PC+ software program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counseled group and the compared group preceded by the MMTIC Growth Program was applied to the counseled group.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rough the procedure mentioned earlier is as follows.

First, the MMTIC Growth Program is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self-esteem of children. The MMTIC Growth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especially social self-esteem, school self-esteem, and domestic self-esteem among the sub-factors of self-esteem.

Second, the MMTIC preference index affecting self-esteem positively is extroversive type, sensual and intuitive type, emotional type, judgment type, and recognition type in order from the most to the least.

Consequently the MMTIC Growth Program is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self-esteem.

Therefore the MMTIC Growth Program presents the educational suggestion that it helps children have confidence by increas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themselves and others, and live school life smoothly by improving their ability in personal relations and encouraging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부 록

<부록1> MMTIC 성장 프로그램

<부록2> MMTIC 성장 프로그램 활동자료

<부록3> 자아존중감 검사

<부록4> 소감문



MMTIC 성장 프로그램

제1회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1. 목적

- ① 마음의 창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자기노출의 체험을 하게 한다.
- 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목적을 이해하여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갖게 한다.

2. 활동내용

1) 동작활동 :나무와 다람쥐 게임 (15분)

- ① 둥글게 원을 만든다.
- ② 3명 1조가 되어 2명은 나무, 1명은 다람쥐가 된다.
- ③ 술래가 “나뭇꾼이다” 외치면 나무가 움직이고
- ④ 술래가 “사냥꾼이다” 외치면 다람쥐가 움직이며
- ⑤ 술래가 “ 태풍이다” 외치면 모두가 움직여 나무와 다람쥐가 된다.
- ⑥ 3명 1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벌칙 부여할 수 있음

2) 프로그램 소개 (5분)

- ① 자신의 성격유형 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 ② 자신감이 길러지며
- ③ 타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호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앞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마음의 창 그리기 (15분)

- ① 자신의 마음의 창을 도화지에 그려보기
- ② 자신의 마음의 창을 소개하기
- ③ “이제 마음의 창을 넓혀가자!” 다짐하기

4) MMTIC 검사 실시

- ① 검사 실시 전 오리엔테이션 (5분)
- ② 검사 실시(30분)

3. 마무리

-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을 발표한다.(10분)

제2회 자기 성격 유형 이해하기

1. 목적

- ① 성격유형을 나타낸 프로파일에서 자신의 성격유형을 찾을 수 있다.
- ② 네 가지 선호경향 및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

2. 활동내용

1) 동작활동 : 산토끼 게임 (15분)

- ① 두 사람이 손을 허리에 하고 마주 선다.
- ② 산토끼 노래에 맞춰 앞으로 한 번, 뒤로 한번, 앞으로 세 번, 또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세 번을 노래가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 ③ 노래가 끝나면 마주 선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뒤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는다.
- ④ 계속 반복해서 한 줄이 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고 마지막 남은 자가 왕이 된다. 왕에게 적당한 포상하기

2) MMTIC 네 가지 선호경향 설명 및 자기유형 추측하기 (15분)

- ① 선호경향의 의미
- ② 네 가지 선호경향의 특징
 - 외향성 - 내향성 · 감각 - 직관
 - 사고 - 감정 · 판단 - 인식
- ③ 자기 유형 추측하기

3) 각 개인의 성격유형 이해하기 (10분)

- ① 프로파일 배부하기
- ② 프로파일에서 자신의 성격유형 찾아보기
- ③ 자신이 예상한 성격유형과 검사결과 일치하는 지 알아보기

4) 16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 알아보기 (30분)

- ① 각 유형에 대해 긍정적인 설명하기
- ② 학급 급우들의 예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3. 마무리

-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을 발표한다.(10분)

제3회 서로 다른 나와 너 (1) - 지표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지표별(E-I, S-N) 그룹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개방하게 한다.
- ②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한다.

2. 활동내용

1) 동작활동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15분)

- 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의자에 앉는다.
- ② 한 명이 술래가 되어 원의 중앙에 선다.
- ③ 술래가 한 명에게 가서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하고 묻는다.
- “예”: 대답한 사람의 양 옆 사람과 술래는 자리를 바꿔 앉고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아니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질문 받은 사람은 구성원의 특징을 잡아 이야기한다. 예컨대 상대가 “머리핀을 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 ④ 머리핀을 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리로 이동을 하며 술래도 재빨리 누군가의 의자에 앉아야 한다. 결국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은 술래가 되어 다시 진행한다.

2) 지표별 그룹활동 (60분)

(1) E - I 활동

- ① E 가 I 에게 하고 싶은 말은?
- ② 그룹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TP 필름에 정리하기
- ③ 활동 내용 발표하기

(2) S - N 활동

- ① 아래동 파출소에서 학교까지 약도 그리기
- ② 그룹별로 발표내용 TP 필름에 정리하기
- ③ 활동 내용 발표하기

3. 마무리 (15분)

-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발표 및 소감문을 작성한다.

제4회 서로 다른 나와 너 (2) - 지표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지표별(T-F, J-P) 그룹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개방하게 한다.
- ②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한다.

2. 활동하기

1) 동작활동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10분)

- ① 동글게 원을 만들어 의자에 앉는다.
- ② 한 명이 술래가 되어 원의 중앙에 선다.
- ③ 술래가 한 명에게 가서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하고 묻는다.
- “예”: 대답한 사람의 양 옆 사람과 술래는 자리를 바꿔 앉고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아니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질문받은 사람은 구성원의 특징을 잡아 이야기한다. 예컨대 상대가 “머리핀을 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 ④ 머리핀을 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리로 이동을 하며 술래도 재빨리 누군가의 의자에 앉아야 한다. 결국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은 술래가 되어 다시 진행한다.

2) 지표별 그룹활동 (60분)

(1) T - F 활동

- ①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 ② 그룹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TP 필름에 정리하기
- ③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기

(2) J - P 활동

- ① 수학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 ② 그룹별로 의논하고 TP 필름에 정리한다.
- ③ 그룹별 활동 내용을 발표한다.
- ④ 발표내용을 자신의 그룹의 내용과 비교하며 듣는다.

3. 마무리 (10분)

-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발표한다. · 소감문을 작성한다.

제5회 소중한 나와 너 (1) - 성격유형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그룹 별칭 짓기 및 성격의 공통점 찾기 활동을 통해 좀 더 깊은 자기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한다.
- ② 자신의 성격유형과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돕는다.

2. 활동하기

1) 동작활동 : 박자 박수 (10분)

- ① 리더는 4박자, 3박자, 2박자, 1박자 등의 지휘 방법을 연습시킨다.
- ② 4박자의 경우 1, 2, 3박자를 지나 마지막 박자에 갈 때 손뼉을 치게 한다.
- ③ 2박자를 지휘할 때는 박수가 빨라지는데 1박자를 빨리 지휘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온다. 그러면 리더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모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 한다.

2) 유형별 그룹활동 (60분)



(1) 그룹 별칭 짓기

- ① 같은 유형끼리 그룹 만들기
- ② 각 구성원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룹 별칭을 지어 그림으로 표현하기
- ③ 그룹별 별칭을 이유를 들어가며 발표하기

(2) 성격의 공통점 알아보기

- ① 나의 장점과 단점
 - 각 구성원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게 하고 공통점을 종합하여 정리
- ② 나의 모든 면을 하나의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
 - 각 구성원의 색깔을 이야기한 후 그룹의 색깔을 표현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기

3. 마무리 (10분)

-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된 점, 재미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 소감문 쓰기

제6회 소중한 나와 너 (2) - 성격유형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구성원 각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고, 비슷한 성격유형의 친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각 유형별로 자신과 다른 유형의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돕는다.

2. 활동하기

1) 동작활동 : 다듬이질 (10분)

- ① 2인 1조의 집단을 구성한다.
- ② 서로 상대의 지정된 신체 부위를 두들겨 준다.
- ③ 두 사람의 역할을 교대하여 실시한다.
- ④ 활동을 마친 후 느낌을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촉진시킨다.

2) 유형별 그룹활동

(1) 성격의 공통점 (40분)

- ①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 ②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 각 구성원의 발표 후 공통점을 종합하여 TP 필름에 정리하기
 - 그룹 대표가 정리한 내용을 이유를 들어가며 발표하기

3. 마무리 (10분)

-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된 점,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기
- 소감문 작성하기

제7회 소중한 나와 너 (3) - 성격유형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숨겨진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참다운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② 각 유형별로 자신의 특성과 다른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필요한 존재로 수용되어진다.

2. 활동하기

1) 명상활동 : 참 나의 탐구 (10분)

- ① 음악에 따라 명상에 들어간다.
- ②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잠재된 의식을 떠올려 과거의 부정적, 긍정적 인 정서를 떠올린다.

안내① :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몸에서 힘을 빼세요.

안내② : 네, 잘했습니다. 그럼 눈을 가볍게 감고 눈동자를 '15도' 각도로 약간 올리세요.

안내③ : 네, 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숫자를 3초 간격으로 떠올려 보세요. 5, 5, 5.

안내④ :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다시 천천히 뱉으면서 온몸에서 힘을 빼고 숫자 4를 떠올려 보세요. 4, 4, 4.

안내⑤ : 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3, 3, 3.

안내⑥ : 다시 숨을 천천히 뱉으면서 숫자 2를 떠올려 보세요. 2, 2, 2.

안내⑦ : 다음에는 1, 1, 1.

안내⑧ : 네 됐습니다. 끝으로 0,0,0.

안내⑨ : 지금 여러분은 매우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슬픈 일, 화나는 일, 피로운 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기쁜 일, 즐거운 일, 신나는 일, 보람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내⑩ : 네, 됐습니다. 그럼, 눈을 살며시 뜨세요.

학습지에 결과를 기록하게 한다.

2) 유형별 그룹활동 (60분)

(1) 나의 정서 뿌리 찾기

① 부정적인 것

-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 내가 가장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 내가 가장 화가 나게 되는 것은?
- 내가 가장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 내가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② 긍정적인 것

-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 나를 신나게 하는 것은?
- 나를 보람있게 하는 것은?
- 내가 제일 기쁘게 여겨지는 것은?
- 내가 제일 즐겁게 여겨지는 것은?
- 내가 제일 신나게 여겨지는 것은?
- 내가 제일 보람있게 여겨지는 것은?

③ 정리할 때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적는다.

④ 발표할 때는 그 때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①에서는 그때의 심정을 중심으로 실감나게 발표한다.

3. 마무리 (10분)

-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된 점,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기
- 소감문 작성하기

제8회 소중한 우리 (1) - 기질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기질별(SJ, SP, NF, NT) 그룹활동으로 자기 탐색의 기회를 갖고
- ②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여 친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2. 활동하기

1) 동작활동 : 원형 던지기 (10분)

- ① 그룹별 5-6인 1조로 학습 집단을 조직한다.
- ② 1명은 원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구성원은 원을 만든다.
- ③ 원 안에 있는 구성원은 원의 중심에 눈을 감고 서서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끝은 자세로 넘어진다.

안내 :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신호에 따라 당신은 아무데나 쓰러집니다. 이 때 당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당신의 몸을 바쳐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넘어지세요.

- ④ 느낌 나누기

2) 기질별 그룹활동 (60분)

- (1)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 (2) 친구가 나에게 불편해하는 점은?
- (3)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는?
 - (1),(2),(3) 내용을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가며 발표하기
 - 그룹대표가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 전체 아동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이유를 들어가며 발표하기

3. 마무리 (10분)

-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된 점,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기
- 소감문 작성하기

제9회 소중한 우리 (2) - 기질별 그룹활동

1. 목적

- ① 기질별(SJ, SP, NF, NT) 그룹활동으로 자신의 학습방법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고
- ② 자신과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수용하며
- ③ 자신을 개방할 수 있다.

2. 활동하기

1) 동작활동 : 인간 사슬 만들기 (10분)

- ① 집단 구성원 모두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서로 손을 잡는다.
- ②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인간 사슬을 만든다.
- ③ 한 사람이 헝클어져 있는 고리를 따라 사슬의 맨 처음과 나중을 찾아낸다.
- ④ 반복한다.

2) 기질별 그룹활동(60분)

- (1) 내가 좋아하는 교과?
- (2) 내가 좋아하는 숙제는?
- (3) 나의 시험공부 방법은 ?
 - (1),(2),(3) 내용을 각 구성원이 이유를 들어가며 이야기한 후 종합하여 정리하기
 - 그룹 대표가 정리한 내용을 이유를 들어가며 발표하기

3. 마무리 (10분)

-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된 점,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기
- 소감문 작성하기

제10회 마무리

1. 목적

- ① 마음의 창을 다시 그려보며 마음의 창이 변화된 이유를 생각해본다.
- ② 프로그램을 마치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2. 활동하기

1) 마음의 창 그리기

- ① 가로축에서는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만큼을 가서 아래로
- ② 세로축에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안다고 생각되는 만큼을 내려와서 가로 줄을 긋는다.
- ③ 처음의 마음의 창과 비교하여 변화된 이유를 발표한다.

2) 소감문 작성하기

- ① 프로그램 과정에서 느낀 점, 프로그램 후의 나의 변화 등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다.
- ② 소감문을 적으며 자신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인식하도록 한다.

< 유의사항 >

- ① 상담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경험들을 종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 전과정에 대해 목적, 내용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② 프로그램만 아니라 상담자의 진행방법 등 전체적인 평가를 적도록 한다.

3. 마무리

- 전체과정을 통해 느낀 점, 깨달은 것에 대해 경험을 나눈다.

부록 2-1)

마음의 창

제()학년 ()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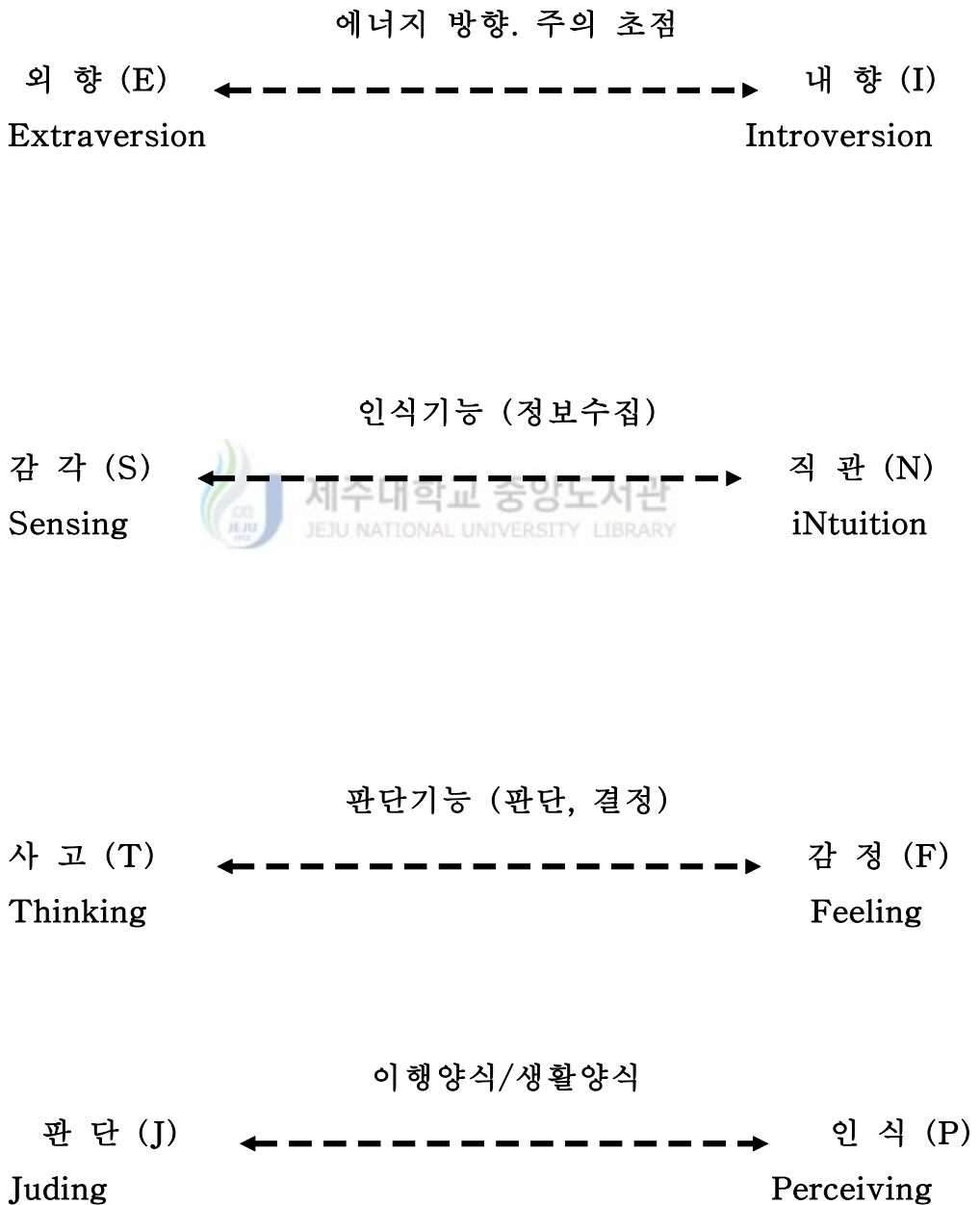
☆ 내 마음의 창을 그려보자.



자신이

		알	모름
타 인 이	알	(ㄱ) 개방영역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	(ㄴ) 장님 영역 너는 알고 나는 모르는 마음
	모름	(ㄷ) 은폐영역 너는 모르고 나는 아는 마음	(ㄹ) 신비영역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마음

4가지 선호경향



부록 2-2-2) 4가지 선호경향의 특징 (1)

외향(Extraversion)	내향(Inter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발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음 •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즉시 부모에게 표현하는 편임 •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고 • 조용히 혼자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 처음보는 친구라도 쉽게 이야기를 건네고 친해지는 편이다. • 기분을 잘 드러내는 편이고 반응을 즉시 보이며 • 숙제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며 •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말로 많이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하고 침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 몇몇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가면 아주 어색해 하고 부끄러워한다. • 혼자 놀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으며 • 생각을 많이 한 후에 행동함 • 친한 친구들을 좋아하면서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때는 혼자하기를 좋아한다.

감각(Sensing)	직관(iNtu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를 할 때도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음 •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할 때 잘 이해함 • 꼼꼼하다는 얘기를 듣고 • 사람들의 외모나 주위환경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잘 기억하는 편임 • 세부적인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를 잘한다. •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익숙한 놀이나 활동을 더 하려고 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를 하다가도 다른 것에 관심을 쏟다가 다시 숙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 • 상상속의 이야기를 즐기며 이야기를 잘 지어낸다. •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 상상속의 친구를 가지고, 혼자 있을때도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 전에 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과제나 숙제를 하는 것을 좋아함 • 다른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

4가지 선호경향의 특징 (2)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라는 질문을 자주하고 · 게임(Game)을 할 때도 경쟁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 ·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편이고 · 게임을 할 때도 규칙을 중요시함 ·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주장하는 편이고 · 논리적인 설명으로 부모나 친구를 잘 설득하는 편이다. ·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아도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편이고,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민감하고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함. ·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고 순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편이고 ·윗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 무엇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하기보다 긴 설명을 하는 편이고 · 게임을 할 때도 양보를 잘 하는 편이다. ·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으면 눈물을 쉽게 흘리는 편이며, 감정에 맞춰 자기상황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 편이다.

판단(Judging)	인식(Perce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보기 전에 미리 공부계획표를 짜놓고 그 계획을 지키는 편이다. · 책임감이 강하고 ·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겨 계획을 갑자기 바꾸면 불편해 한다. · 자기방이나,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는 편이다. · 숙제를 끝내놓고 노는 편이고 · 제때에 숙제를 못하거나, 학교에 가져 갈 때 대단히 조급해 하고 걱정을 하는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보기전에 계획표를 짜기는 하나, 중간에 변경을 많이 하는 편이다. · 숙제를 두고도 재미있게 노는데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 숙제는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헤버리는 경향이 있다. · 학교에 제출한 과제가 준비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며 ·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친구나 상황에 잘 맞춘다. · 방이나 책상을 대체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다.

부록 2-2-4)

16가지 유형 지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부록2-3)

서로 다른 나와 너 (1)

() 학년 () 반 이름 ()

☆ 나와 친구의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알아보자.

1. E 가 I, 또는 I 가 E 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은?



2. 아라동 파출소에서 학교까지의 약도를 그려보자.

3.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

부록 2-4)

서로 다른 나와 너 (2)

() 학년 () 반 이름 ()

☆ 나와 친구의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알아보자.

1.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2. (세계)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3.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

부록 2-5)

소중한 나와 너 (1)

() 학년 () 반 이름 ()

☆ 나를 알고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자.

1. 나는 어떤 성격일까?

① 나의 장점?



② 나의 단점은?

2. 나의 모든 면을 하나의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까?

그 이유는?

3.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

부록 2-6)

소중한 나와 너 (2)

() 학년 () 반 이름 ()

☆ 나를 알고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자.

1. 나의 세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2.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3.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자.

부록 2-7-1)

소중한 나와 너 (3)

- 내가 사랑하는 '나'의 참모습 (1) -

() 학년 () 반 이름 ()

·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 내가 가장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 내가 가장 화가 나게 되는 것은?

· 내가 가장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 내가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부록 2-7-2)

소중한 나와 너 (3)

- 내가 사랑하는 '나'의 참모습 (2) -

() 학년 () 반 이름 ()

·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 나를 신나게 하는 것은?

· 나를 보람있게 하는 것은?

· 내가 제일 기쁘게 여겨지는 것은?

· 내가 제일 즐겁게 여겨지는 것은?

· 내가 제일 신나게 여겨지는 것은?

· 내가 제일 보람있게 여겨지는 것은?

4가지 기질적 특성

SP 아동 및 청소년기 기질적 경향	SJ 아동 및 청소년기 기질적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지향적, 자유로움 선호 · 대담함/자발성 · 즉흥적/충동적 · 모험심과 호기심 · 신체적 참여와 체험선호 · 놀이와 즐거움 추구 · 장난꾸러기 별칭 · 감각적, 미식가 · 튼튼한 옷/장난감 · 예술활동/게임학습 선호 · 정리정돈이 어려움 · 변화/흥분/자극 선호 · 과잉행동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과 소속감 추구 · “모범생”, “착한 아이” 별칭 · 보호자 역할 선호 · 책임감 발휘욕구 · 준비성이 높음 · 계획에 따라 학습 · 학교 규칙 준수 · 교사의 지시에 큰 비중 · 정리정돈 선호 · 타인의 반응 중요시 · 복습, 예습 · 계산, 낭독/반복 학습을 잘 견딤
NT 아동 및 청소년기 기질적 경향	NF 아동 및 청소년기 기질적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표정 · “왜”라고 질문 · 독립적 · 지적 호기심 강함 · 체벌에 대한 강한 반응 · 시험, 발견, 탐색 선호 · 다양하고 복잡한 장난감 선호 · 다량의 독서(공상과학, 탐정) · 서툰 정서 표현 · 비사교적 · 비판력 · 논리적 이유추구 · 수학, 과학, 공식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에 능한 경향 · 생생한 이미지/상상력 · 동화, 꿈, 그림자 친구 · 인물 장난감 선호 · 정체감 갈등/자아인정욕구 · 정서적 민감성 · 거부에 대한 과민반응 · “꿈쟁이”, “이야기쟁이” 별칭 · 동정심 · 다량의 독서(소설, 시) · 개별적 관계중시 · 포괄적, 인상주의적 경향 · 소집단 학습선호

부록2-8-2)

소중한 우리 (1)

() 학년 () 반 이름 ()

1.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2. 친구가 나에게 대해 불편해 하는 점은?



3.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실수는?

4.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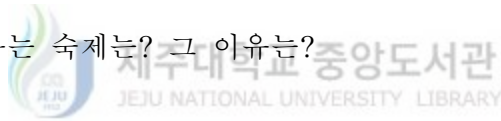
부록 2-9)

소중한 우리 (2)

() 학년 () 반 이름 ()

1. 내가 좋아하는 교과? 그 이유는?

2. 내가 좋아하는 숙제는? 그 이유는?



3. 나의 시험공부 방법은?

4. 오늘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부록 2-10)

마음 여미기

제()학년 ()반 이름()

☆ 내 마음의 창을 그려보자.



자신이

		알	모름
타 인 이	알	(가) 개방영역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	(나) 장님 영역 너는 알고 나는 모르는 마음
	모 름	(다) 은폐영역 너는 모르고 나는 아는 마음	(라) 신비영역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마음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프로그램 후의 자신의 변화 등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부록 3>

자아 존중감 검사

초등학교 5학년 ()반 (남, 여) 이름 ()

아래의 질문은 우리가 항상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곳에 ○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느낌대로 정확히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지금의 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할 때가 있다. () ()
2. 나는 반 전체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다. () ()
3. 나에게는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 ()
4. 나는 어떤 일이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 () ()
5. 나는 다른 사람과 재미있게 지낸다. () ()
6. 나는 집에서 쉽게 화를 낸다. () ()
7. 나는 새로운 사람과 친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 ()
8.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 ()
9.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내 기분을 생각해 주신다. () ()
10.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만다. () ()
1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신다. () ()
12.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 ()
13.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서 내 공부를 방해한다. () ()
14.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을 잘 따른다. () ()
1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 ()
16. 나는 학교에서 내가 하고싶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 ()
17. 집을 나오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다. () ()
18. 친구들에 비해 내 얼굴은 잘 생기지 않았다. () ()
19.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체로 그것을 말하는 편이다. () ()
20. 나의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 ()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 () ()
22.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 ()
23.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 ()
24.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다. () ()
25.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뻐만한 사람이 못된다. () ()

소 감 문

♣ 친구들과 장래희망, 소원 등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마음이 잘 통해서 더욱 친해진 것 같다. 마음의 창 그리기 활동에서 나도 알고 친구들도 아는 개방영역이 처음보다 많이 넓어졌고, 앞으로 더욱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마지막 활동이라는 것이 아쉽다. --소리 (ESFJ)--

♣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활동하니깐 마음이 잘 맞아서 신기하였다. 특히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내 마음을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내 태도가 많이 변하였다. 매일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 어지럽히는 것,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현주(ESFP)--

♣ 친구들의 장래희망, 좋아하는 과목 등을 알게 되어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소중한 나와 너'에서 내가 아는 마음의 창이 넓어졌지만 신비의 영역도 많아서 아쉽다. 이런 활동을 더 해서 더 많은 친구의 성격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의 신비의 영역을 줄여가고 싶은데 끝낸다는 것이 아쉽다. 지금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무척 궁금하다. 6학년, 중학생이 되어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욱(INFP)--

♣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면서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을 알게 되고, 유형이 같은 친구들과는 마음이 척척 맞아서 너무 신기했다.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친구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또 처음 시작할때보다 내 마음의 개방영역이 정말 많이 넓어졌다.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해서 개방영역을 더 넓히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정말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수연(ENFP)--

♣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 내 성격을 잘 알게 되어 좋았다. 나의 보물을 찾은 것이다. 또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며 내 생각과 다른 점이 많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들이 성격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현석(ISFP)--

♣ '소중한 나와 너'의 활동을 성격이 같은 친구들과 마음이 잘 통해서 즐거웠다. 또한 친구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특히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발표하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 나는 친구들에게 화를 낼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친구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다. -- 솔(ESFP)--

♣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의 창이 점점 넓어지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격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 특히 같은 성격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며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활동이 좋았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형규(ENFP)--

♣ 내 성격을 '명랑하고 밝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내 성격유형은 ENFP이지만 꼼꼼한 J의 성격도 갖고 싶다. ENFP의 친구들과 성격이 비슷하여 신기하였고 활동하는 동안 몹시 즐거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좋다.



♣ 여러 친구들의 숨겨진 마음과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나와 친구들의 성격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어 나도 알고 친구들도 아는 마음이 많이 넓어졌다. -- 지영 (ISTP)--

♣ 지금까지 잘 몰랐던 친구의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더 친해졌다. 그래서 짜증도 잘 안내고 더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제 나의 장점을 더 키우고 단점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겠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의 창이 넓어져 정말 기분이 좋다. -- 종후(ENFP) --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의 장래희망, 소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었다. 내 단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내 장점을 늘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겠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의 창을 더 넓혀야겠다. -- 유진(ENFP) --

♣ 마음이 너무 잘 통했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똑 같을 수 있을까! 신기했다. 친구들과 소원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을 잘 알 수 있었다. -- 유희(ESFP) --

♣ 내 성격유형은 INFP이다. INFP 친구들과 활동할 때는 마음이 잘 맞아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나의 장점, 단점들을 친구들에게 말해주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의 창이 넓어졌다. 나의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 이제 친구들과 더 친할 수 있을 것 같다. -- 효진(INFP) --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가 많이 생겨,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의 창이 넓
어졌다. 반대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마음의 창은 줄어들었다.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마음을 찾고,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소중한 나와 너’ 활동 은
ESFP 유형끼리 했는데, 마음이 너무 잘 맞고 텔레파시가 잘 통해서 모두들
신기해했다. -- 지수(ESFP) --

♣ 내 성격유형은 ENTP 인데 우리 반에는 동우밖에 없어서 주로 동우랑 같이
활동을 했는데, 공통점이 많았다. 재미있고 신기해서 시간 이 날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동우와 둘만의 활동이 많았는데, 여러 명의 친구들 과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유형이 반대되는 친구끼리 활동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마음의 창을 더 넓히고싶다. --정희 (ENTP) --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마음을 친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늘려야겠다. -- 민정 (ENFP) --

♣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이해하게 되어 더욱 친해졌다. 활동을 하고 난 후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셨다. 마지막 시간인 것이 아쉽다.
이제부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의 영역을 더 넓혀야겠다.--세영(ENFP) --